

China's Qi Dynasty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Utilization and Local Mutual Benefit Plan

중국 제나라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지역상생 방안

Dong Juan¹, Gun Woong Lee

동연¹, 이건웅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djzb2005@naver.com

²Adjunct Professor, Dept. of Media Content Creation, Global Cyber University, Korea, nayagun@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Gun Woong Lee

Abstract: The culture and ideas of the Qi dynasty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are an important part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he Qi and Lu dynasties represent Shandong culture on a small scale, and form the core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on a larger scale. Qi culture provided rich intellectual resources and theoretical support for later schools of thought, including Confucianism, Taoism, and Legalism. Qi culture is widely recognized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Asia and the world. However, Linz, the site of the capital of the Qi Dynasty, is currently not well known and it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re not well utilized, and local people do not enjoy the benefits of it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course, the government is investing large amounts of money and making efforts to promote it. In order to better utiliz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local win-win cooperation, this study explores various ways to promote cultural tourism, including historical and cultural course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s. It proposes the development of utilizable content that can enhance Shandong's regional brand and bring real benefits to local people. Finally, by utiliz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Qi dynasty, I propose cultural contents, cultural tourism, investment attraction,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Keywords: Shandong, Qi,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ultural Tourism, Regional Co-prosperity

요약: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제(齊)나라의 문화와 사상은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제나라와 노(魯)나라는 좁게는 산둥문화를 대표하며, 넓게는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을 구성한다. 제나라 문화는 훗날 유가, 도가, 법가 등 여러 사상 유파에 풍부한 사상자원과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제나라 문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는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제나라 수도 유적지인 린쯔(臨淄)는 현재 지명도가 높지 않고 역사문화 자원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민도 역사문화 자원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더 좋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상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 역사문화 코스, 전통문화 체험 등 여러 가지 문화관광 추진 방법을 살펴보았다. 산둥의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Received: May 10, 2023; 1st Review Result: June 16, 2023; 2nd Review Result: July 16, 2023
Accepted: August 25, 2023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분석했다. 이에 SWOT 전략을 활용해 제나라와 산둥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제나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 문화관광, 투자유치와 지역민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핵심어: 산둥, 제나라, 역사문화자원, 문화관광, 지역상생

1. 제나라의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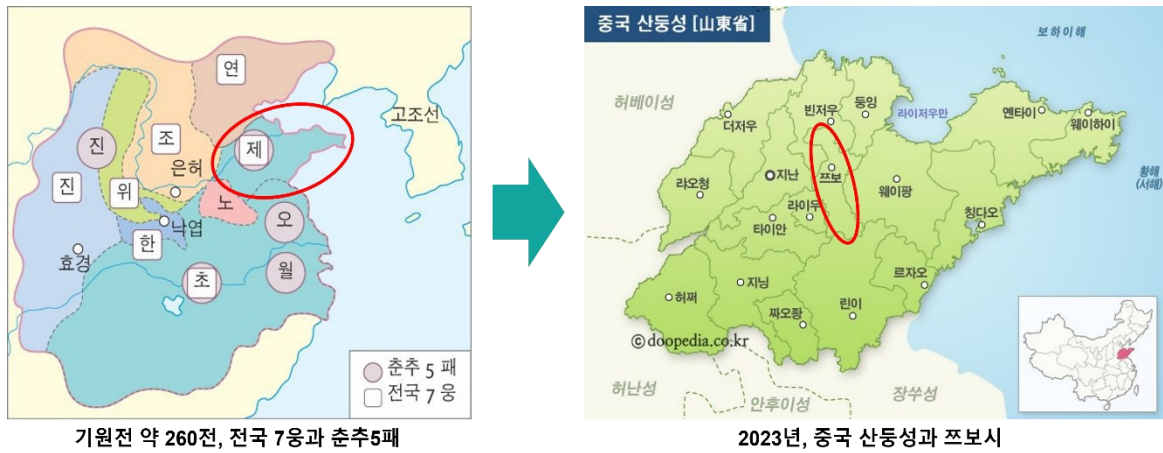
중국 제나라는 기원전 1044년 강태공(姜太公)이 분봉(分封)을 받아 제나라를 건국 후 기원전 221년 전제(田齊)가 진나라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8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제나라는 춘추전국 시대 ‘춘추오패(春秋五霸)’ 중의 최고로 칭송받던 전국칠웅의 최강자였다. 그리고 과거 제나라의 핵심 도시는 쑤보(淄博)였다. 쑤보는 제나라의 옛 수도이자 ‘요재지이’의 고향, 도자기의 명소, 축구의 발원지(齊國故都, 聊齋故里, 陶瓷名城, 足球故鄉)으로 잘 알려진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제나라 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원천 중 하나이며,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나라와 노나라는 현재 산둥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나라의 문화콘텐츠는 매우 풍부하다. 제나라 문화는 주로 관자학(管子學), 안자학(晏子學), 제병학(齊兵學), 직하학(稷下學), 제과학(齊科學), 제문예학(齊文藝學) 등을 포함한다. 관자학에는 제나라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가, 군사가인 관중(管仲)의 치국학(治國學), 부국학(富國學), 병학(兵學) 등 다양한 철학사상을 포함한다. 공자는 ‘화하제일상(華夏第一相)’으로 불리는 관중에 대해 “오기피발좌임의[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관중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했을 것이다(야만인을 비유한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안자학은 제나라 정치가 안영(晏嬰)의 치국학(治國學), 민본학(民本學), 처세학(處世學), 귀신학(鬼神學)을 포함한다. 제병학(齊兵學)은 『손자병법(孫子兵法)』, 『사마법(司馬法)』, 『육도(六韜)』 등 병학사상을 포함한다. 직하학(稷下學)은 황로학설(黃老學說), 묵가학설(墨家學說), 음양오행학설(陰陽五行學說), 명가학설(名家學說), 종횡가학설(縱橫家學說), 유가학설(儒家學說)을 포함한다. 제나라의 과학 중에서 공예학, 의학, 천문학 등 기초과학 분야가 뛰어났고, 제나라 때 만들어진 『고공기(考工記)』는 중국 첫 번째 과학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문예학(齊文藝學)은 신화 시가, 전기, 산문, 음악 등이 포함되었다. 공자가 제나라에서 이 음악을 듣고 ‘삼월부지육미(三月不知肉味)’라고 말했다. 또한 제나라는 중국 축구(蹴鞠, 현대 축구의 시조)의 발상지로 그 시기 평민과 귀족이 즐겨하는 운동 종목이었다[1].

제나라는 유명한 정치가, 군사전문가, 사상가, 과학자를 대량으로 배출하였다. 예를 들어 강태공(姜太公), 제환공(齊桓公), 관중(管仲), 안영(晏嬰), 손무(孫武), 사마료토(司馬穰苴), 제위왕(齊威王), 손빈(孫臏), 추연(鄒衍), 추치(鄒忌), 편작(扁鵲), 감덕(甘德), 서복(徐福), 순우의(淳於意) 등이 있다. 이러한 걸출한 인물들과 현지 백성들이 다채로운 제나라 문화를 창조해 낸 것이다.

제나라 직하학궁(稷下學宮)은 전국시대 학술문화의 중심지로서 선진(先秦) 사상문화의 발전을 대표하고 있다. 제자백가(諸子百家)와 그 대표 인물들은 대부분 제나라

사람이거나 제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공자(孔子)는 제나라에서 음악을 듣고 ‘진선진미(盡善盡美)’라고 칭찬한 바 있다. 맹자(孟子)는 제나라에 20여 년 동안 살았으며 사직시주(社稷是主)와 민본사상(民本思想)의 영향을 받아 “백성은 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마지막은 임금이다(民为贵, 社稷次之, 君为轻)”라는 사상을 전파하였다. 순자(荀子)는 직하학궁에서 세 번이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았으며, 그의 학문 또한 제나라에서 완성되었다. 선진(先秦) 도가의 중요한 학파인 황로학(黃老學)의 형성과 발전은 주로 제나라에서 이루어졌다. 법가와 제나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관중(管仲)은 춘추시대 법가의 선구자였다. 제법가(齊法家, 관중학파)는 순자부터 법가의 집대성자이자 순자의 제자였던 한비(韓非)와 이사(李斯)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국시대 음양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추연(鄒衍)은 제나라 사람이고, 명가(名家)의 대표인 공손룡(公孫龍)은 제나라 직하학궁에서 변론했으며, 윤문(尹文), 전바(田巴) 등 명가의 학자들은 모두 제나라의 직하선생(稷下先生)이라 칭했다[2].



[그림 1] 과거 제나라와 현재 산둥성[3]

[Fig. 1] Qi in the Past and Shandong in the Present

800년 동안 제나라 수도인 린쯔(臨淄)는 제나라 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로서 주나라부터 한나라까지 가장 큰 상업 도시이었다. 야금, 방직, 마차, 도자기, 철기, 청동 거울 등 수공업 기술의 중심지이며, 소금, 실크, 도자기 무역의 가장 큰 중심지였다. 전한 초기에도 대도시로서의 면모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당시 린쯔에는 10만 가구가 있었고 인구는 50만 명에 달했다. 린쯔의 백성들은 매우 풍족해 ‘장안(長安)보다 부유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꼽혔다. 린쯔는 한나라 다섯 개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서쪽에는 장안이 있고 동쪽에는 린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4].

이렇듯 제나라 수도였던 린쯔는 제나라 문화를 포함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린쯔는 그 찬란한 역사를 뒤로 한 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둥지역 정부도 이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 린쯔의 지명도는 역사문화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민 역량을 동원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린쯔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제나라 문화자원 이용 방안

제나라 수도였던 린쯔는 지금 중국 산둥(山東)성 쯔보(淄博)시 린쯔(臨淄)구에 있다. 쯔보시 정부는 린쯔구의 관광산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린쯔구도 관광업을 매우 중시한다. 구청은 ‘일대양익사극십점(一帶兩翼四極十點)’ 전략으로 쯔하(淄河)를 고리로 강태공(姜太公), 관중(管仲), 축국(蹴鞠), 직하학궁(稷下學宮)을 네 가지 중점으로 쯔하습지공원(淄河濕地公園), 천제연국가산림공원(天齊淵國家森林公園), 제문화연학기지(齊文化研學基地), 제고성(齊古城), 제두문화성(齊都文化城), 제고성고고유적공원(齊故城考古遺址公園) 등 ‘10대 문화여행융합사업’을 계획하였다.

쯔보시 정부가 주최하고 린쯔구가 주관하는 국제제문화관광제(國際齊文化旅遊節)는 2004년에 시작해 2022년까지 19회가 개최했으며, 2023년 9월 20회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주요 행사는 강태공(姜太公) 제사의식(儀式), 제소악(齊韶樂) 무용, 축국공연, 관광유치상담회, 학술세미나, 서화(書畫)전, 문화제 기간에 관광지 입장권 1원,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7]. 시청과 구청은 많은 자금을 투자해 린쯔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온라인 홍보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린쯔는 그에 비해 지명도가 높지 않고 문화제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인기가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 측면에서 고위급 인사와 유명한 학자, 예술인, 연예인 등을 많이 초청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지민들은 홍보나 문화자원 활용에 동참하지 않고 직접적인 편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생과 지역축제의 기본인 지역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점은 문제점이며, 이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 정부는 지역민을 동원하여 제나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살펴본다

3. 제나라의 문화관광 활용

제나라의 중심 도시였던 쯔보는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쯔보 전체에 190곳의 시 단위의 중점문화유산이 있고, 16개 국가급(성급 포함) 무형문화유산이 있다. 그 외에도 도자, 요재지이, 견우직녀전설, 도류문화, 효문화, 오음희문화, 맹강녀설화, 상추문화, 귀곡문화 등 10여 개의 지역문화콘텐츠가 있다. 또한, 축국(蹴鞠), 다란방(大染坊), 류취안(柳泉), 타이궁(姜太公), 한마터우(石蛤蟆), 즈옌(淄硯), 저우춘샤오빙(周村燒餅) 등 10여 개 산업형 문화브랜드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관광절, 요재문화절, 한마터우예술절 등 10여 개의 지역축제가 있다[8]. 따라서 쯔보를 중심으로 제나라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콘텐츠는 풍부하다.

사실, 린쯔는 현재의 산둥성 쯔보시의 하나의 구에 불과하고, 쯔보시 정부 소재지가 아니다. 그리고 쯔보시의 5개 구는 서로 떨어져 있어 연계성이 부족한 지리적 한계가 있다. 쯔보시는 교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린쯔의 교통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다. 린쯔는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가 멀고 이동 동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으면 관광하기가 불편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산둥 전체 교통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나라 역사나 콘텐츠를 소재로 한 문화관광코스를 새로 개발해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즉, 쯔보시 도심에서 린쯔구 각 관광지에 가는 순환 코스가 필요하다. 승차권이 무료거나 싸게 판매하고

승차권 한 번 구매하면 하루에 각각의 관광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통합적인 패스권이 필요하다. 또한, 산둥성 정부 소재지인 지난(濟南) 시가 린쯔에서 멀지 않고 비행기나 고속기차 등 편리한 교통 대체제가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이 많아서 지난-린쯔 코스를 개설하면 효율적이다. 제나라 문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해서 지난-린쯔 관광여행 코스를 개설하고 특별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관광투어를 개설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 버스에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관광안내서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서비스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문화관광 투어를 개발하면 지역민 중에서 차량기사와 문화해설사 등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인천-지난에 도착해 타이산(泰山)과 취푸(曲阜)의 공자묘, 공자탑 등을 투어하는 주요 관광코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면 효율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끝으로 경영 마케팅 분야의 고전적인 방법의 하나인 SWOT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제나라 문화관광산업의 내부환경에 따른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에 따른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산둥의 제나라 지역의 강점을 보면, 문화와 역사 자원이 풍부하고, 산둥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불균형과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교통 불편한 약점을 안고 있다.

외부적 환경으로 기회는 외부 시장이 넓고, 중국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의 발전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등 주변국과 연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반면에 약점도 있는데, 주변 지역과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 관광객은 산둥에 주로 칭다오나 지난, 타이산, 취푸 등을 선호해 가장 큰 경쟁자다. 또한, 박물관이나 축제 등 큰 특징이 없고, 동질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표 1] 참고).

[표 1] 제나라 문화관광[9]

[Table 1] Qi Culture Tourism SWOT

SWOT 전략	기회(O)	위기(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시장이 넓음 - 중국 내 네트워크의 발전 - 한일 관광산업 연계 - 니하오 산둥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과 경쟁이 치열함 - 관광자원의 동질화가 심함 - 관광객의 요구가 다양함 - 생태오염과 환경 문제 대두
강점(S)	SO 전략	S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역사, 자원) 풍부 - 지리적 접근성 우위 - 산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 및 도시와 협력 강화 -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 - 홍보 및 브랜드 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광자원과 테마를 개발 - 문화관광의 다양화 및 다각화 - 생태관광과 킬러콘텐츠 등 개발
약점(W)	WO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오염 - 지역 불균형 발전 - 지역 간 교통의 불균형 - 관광자원의 질적 미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미디어를 활용 강화 - 투자 증대 및 관광산업 개방 증진 - 내국인 중심에서 주변국 관광객 모객과 문화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인 자원의 고도화 - 생태/환경/기후 문제 극복 - 산둥 각 지역 간 연계

[표 1]을 기반으로 제나라 문화관광을 위한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O 전략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인근 도시와 협력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유구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동의 이미지 브랜드와 연결해야 한다. 특히 광고홍보는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ST 전략은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와 새로운 테마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산동 연해 지역 관광개발과 문화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WO 전략은 뉴미디어와 위챗과 웨이보와 틱톡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젊은 층을 유입하는 효과와 더불어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한다. 또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WT 전략은 자체적인 자원 발전 및 생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생태관광은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 중의 하나이다. 또한, 산동의 여러 관광지와 연계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처럼 제나라 문화가 지닌 강점과 기회는 득하고 약점과 위기는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10].

4. 결론: 시사점과 제언

중국 제나라 역사 문화를 활성화해 넓게는 산동성의 문화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 간 교통의 불균형 등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그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하고 제나라 문화에 속한 지역민과 지역 발전 등 기대효과를 도출했다.

우선, 환경이 문제다. 산동성뿐만 아니라 중국은 개발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태생적으로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성장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 기후 문제나 생태관광 등에 역행하는 문제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국제공동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 대기 중 프레온가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를 만들면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이 프레온가스의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프레온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중국 산동성과 허베이성이다[9]. 산동성의 환경오염은 심각해 2016년 <산동성 대기오염 예방·퇴치 조례>(山东省大气污染防治条例, 2016.07.22)를 제정하기도 했다[11].

둘째, 쑤보시는 교통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이는 지형적인 특징과 연관되는데, 쑤보시 북부(가오칭, 환타이, 나우춘, 장톈, 린쯔)는 평야 지대가 많아 도로가 발달했지만, 중남부(쯔촨, 보산, 이위안) 지역은 산간 지역이 많아 교통이 불편하고 상호 이동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셋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산동 지역의 관광코스는 공자와 타이산을 대표로 한 지난시 → 타이산 → 취푸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는 칭다오맥주로 유명한 칭다오나 옌타이, 웨이하이 등 해안 도시가 인기가 높다. 하지만 쑤보시는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라서 산동성 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다만, 최근 쑤보시가 산동의 신흥 관광지로 격상되고 있다. 쑤보시가 위챗과 틱톡 등 SNS에서 바비큐와 양꼬치로 인기를 끌면서 노동절 연휴기간 호텔 예약량이 800% 상승했고, 하루 기차 이동량도 5만 명에 달한다. 쑤보시가 내국인에게 인기를 끌면서 “쑤보시가 이렇게 변화한 것은 아마도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이후 처음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12].

이러한 산동성 린쯔시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정리하면 역사문화와 전통문화의 체험, 관광정책 수립과 민간투자 유치, 문화콘텐츠 개발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역사문화 및 전통문화 체험이다. 예를 들어, 제나라 복식, 악기, 축국(蹴鞠) 등의 체험행사를 개발해야 한다. 제나라 음악, 제나라 관련 사자성어

그림그리기 등 문화 활동을 통해서 제나라의 역사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나라의 복식예술은 제나라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며, 중국 복식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형태·색채·문의·소재·장식물 등으로 구성된 형식미는 제나라 복식의 뚜렷한 지역적 특징과 예술적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객들이 제나라 복식을 입으면 독특한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제나라의 예술과 체육은 아주 풍부하다. 『진국책·제책(戰國策·齊策)』에 따르면, 린쯔가 매우 부유하여 백성들이 항상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닭싸움과 개경주를 시키고 기류 운동과 축국을 즐겼다. 관광객이 제나라 악기, 기류, 축국을 체험하고 재미있게 놀게 하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나라와 관련된 민담 설화와 사자성어가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관보지교(管鮑之交), 위위구조(圍魏救趙), 계명구도(雞鳴狗盜), 노마식도(老馬識途), 남우충수(濫竽充數), 일명경인(一鳴驚人), 교토삼굴(狡兔三窟), 전기새마(田忌賽馬),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 급과이대(及瓜而代), 휘한성우(揮汗成雨), 비견계중(比肩繼踵), 화이부동(和而不同), 문정약시(門庭若市), 백가쟁명(百家爭鳴), 평이근인(平易近人), 남굴북지(南橘北枳), 불의지재(不義之財) 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와 사자성어는 관광객들이 몰입을 돕고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보디페인트나 그림그리기, 링링허우(00세대)가 좋아하는 코스프레, 스크립트킬(劇本杀) 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동시에 개발하면 된다.

둘째, 관광정책 수립과 민간투자 유치다. 현지 정부는 관광 관련 산업육성 등 지원 정책을 꾸준히 수립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필요한 내용을 경청하고 건의사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코스의 경영,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민간투자를 접목한다. 1단계로 현지인의 참여와 투자를 촉구해야 한다. 현지 문화를 가장 잘 아는 현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 및 참여, 인적 자원은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으며, 역사문화자원 개발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다. 2단계로 타지인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진행해야 한다. 제나라의 역사문화 자원은 산둥이나 중국인의 자원이기도 하지만 전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타지인과 외국인의 유입을 적극 촉진하고 외국인의 투자도 유치해 호텔과 같은 편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이다. 젊은 소비자는 문화 활동의 주요 트렌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젊은이는 재미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추구하고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 중국 링링허우(00세대)의 관심을 끈다면 그들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핫 플레이스로 모여드는 속성이 있다. 2030과 같은 젊은 층은 틱톡과 같은 숏폼 콘텐츠에 열광해서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독특한 제나라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한다면 좋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제나라 문화콘텐츠 개발 공모를 통해 지역민이 참여해 콘텐츠를 대량 개발해야 한다. 특히, 문화상품과 파생상품 개발, 제나라 캐릭터 개발 등이 중요하다.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志異)에 등장하는 수많은 요괴 캐릭터를 상품화할 수 있으며, IP산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제나라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웹소설, 그리고 고전적인 소설 작품의 현대화도 필요하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많은 군소 국가의 난립할 시기고 제자백가가 탄생하고 융성한 시기다.

이렇듯 제나라 역사문화자원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고 제나라만의 독특한 킬러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좋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축구의 기원인 축국을 활용한 콘텐츠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 『요재지이』의 <섭소천(聶小倩)> 이야기는 영화 <천녀유혼>(1987)의 원천콘텐츠이며, 이외에도 영화 <백발마녀전>(1993)과 같이 신선, 귀신, 도깨비, 유령 등 다양한 요괴가 등장한 영화와 캐릭터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역사콘텐츠와 지역의 콘텐츠를 뉴미디어와 접목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중국은 지역민의 ‘참여’보다 ‘동원’에 익숙한 시스템이다. 지역축제든 문화상품이든 관광상품 개발이든 지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처럼 능동적인 자세가 동원과 같은 수동적인 자세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역사문화와 전통문화의 체험, 관광정책 수립과 민간투자 유치, 문화콘텐츠 개발 등은 지역민처럼 ‘민’과 산동성과 쓰보시처럼 ‘관’의 역할, 마지막으로 산둥이공대학 같은 ‘학’과 같이 산학연이 연계해 제나라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및 및 운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나라 문화는 내용이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발상지인 린쯔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역사문화자원을 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상생 사업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 역사문화관광 코스, 등 여러 가지 관광 추진 방법을 살펴보았다. 지역 브랜드 높이고 지역민에게 좋은 편익을 가져다줄 방안을 제안했다.

References

- [1] Kim In-hoe, 2007 East Asian Ancient Society Exploration Report on Sandong Area, East Asian High School, (2007), Vol.16, pp.430-431.
- [2] Du Yumei, Confucianism and the Development of Shandong Cultural Industry, Tuixi Studies 23 episodes, (2015)
- [3] <http://m.maybug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406>, Jul 28 (2023)
- [4] LiuXiang, Among the 70,000 households in Linzi... they are very rich and real, and all of their people play the Yu, play the zither, build buildings, play the piano, fight cocks, run dogs, play six games, and play Ju, Warring States Policy·Qi Policy(战国策·齐策), (2022)
Available from: <https://www.bilibili.com/read/cv19365070/>
- [5] Shasha Wang,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in Linziqi, Shandong Province, Art World, (2023),
Available from: <https://xueshu.baidu.com/usercenter/paper/show?paperid=1k5v04a03w440rs0b97n0rb0n0127868>
- [6] Hyun Gyu Shin, The Origins and Formational Process of Soccer: A Critical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06), Vol.45, No.3, pp.1-10.
UCI: G704-000541.2006.45.3.018
- [7] <https://baike.baidu.com/item/%E5%9B%BD%E9%99%85%E9%BD%90%E6%96%87%E5%8C%96%E6%97%85%E6%B8%B8%E8%8A%82/7687821>, Jul 20 (2023)
- [8] Zhao Wanli, Cultural Responsibilities of Zibo City in the "Belt and Road" National Strategy, Shandong Trade Union Forum, (2016), Vol.22, No.1
Available from: https://wenku.baidu.com/view/04bb0b0d0b75f46527d3240c844769eae109a341.html?_wks_ =1693396327253&bdQuery=%E8%B5%B5%E4%B8%87%E9%87%8C+%E3%80%8C%E6%B7%84%E5%8D%9A%E5%B8%82%E5%9C%A8%E2%80%9C%E4%B8%80%E5%B8%A6%E4%B8%80%E8%B7%AF%E2%80%9D%E5%9B%BD%E5%AE%B6%E6%88,
- [9] Wang Ho-cheon, Kim Byeong-dae, a study on measures to revitalize tourism brands in Shandong Province, China, the 88th Korea Tourism Association Daegu-Gyeongbuk International Conference, pp.440-442, (2020)

Available from: https://www.tosok.org/community/Board_view.asp?idx=686&BoardID=Board1

[10] Stephen A. Montzka, Geoff S. Dutton, Pengfei Yu, Eric Ray, Robert W. Portmann, John S. Daniel, Lambert Kuijpers, Brad D. Hall, Debra Mondeel, Carolina Siso, J. David Nance, Matt Rigby, Alistair J. Manning, Lei Hu, Fred Moore, Ben R. Miller & James W. Elkins, An unexpected and persistent increase in global emissions of ozone-depleting CFC-11, *Nature*, (2018), pp.413-417.

DOI: <https://doi.org/10.1038/s41586-018-0106-2>

[11]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53&code=700205&searchType=all&CTS_SEQ=46807&ETC=, Jul 23 (2023)

[12]https://mbd.baidu.com/newspage/data/videoshare?nid=sv_10559523743364709859&uk=gAlq8HX57k3x71YjYQXjEA&rawFrom=feed_video_landing, Jul 23 (2023)